

# 기술 개발의 열망,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인 모임 ‘무궁화회’

〈글 / 오형석 ohs@mbakery.co.kr〉



이십대 중반부터 삼십대에 이르는 젊은 기술인으로만 이루어진 회원 구성. 한달에 한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체 세미나를 기획해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온 성실한 모임 후 일체의 술자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회칙을 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실천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에게 모임의 목적을 뚜렷이 각인시켜나가는 철저한 회원 관리.

인천지역에 등지를 틀고 있는 ‘무궁화회’ 회원들의 지독할 정도의 자기 관리는 기술 개발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인천 지역 기술 모임의 태두가 되기 위해 일본 일초를 아껴 쓰고 있는 그들을 통해 진정한 기술인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

## 98년 ‘샤보리베이커리’ 서 태동, 2000년 들어 활발한 움직임

98년 7월, 인천에 있는 샤보리베이커리를 거쳐간 전현직 공장 인력들이 조출한 모임을 시작하면서 ‘무궁화회’는 처음 등지를 틀기 시작한다. 이 시기 모임의 정식 이름은 ‘선후회’. 이름 그대로 선후배 출신들이 여가 시간에 좀 더 나은 기술 교류를 위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는 것이 첫 모임의 모토가 됐다. 당시 회원들은 모두 8명으로, 지금은 이 모임의 주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자영 제과점을 경영하는 업주로 거듭나고 있다. 회원들이 하나들 늘어나게 되면서 ‘선후회’는 ‘무궁화회’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생명력 있는 꽃의 상징인 무궁화를 선택함으로써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는 이 꽃의 섭리를 닮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무궁한 기술은 없을지 몰라도 기술 개발의 의지는 한결같고 또한 무궁할 수 있다는 것이 모임 관계자들이 털어놓는 각오다. 인천 각 지에서 취지를 동감하고 모여든 회원이 현재 17명에 이르면서 모임은 다시 한번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엄격한 회원관리를 통해 처음에 각오했던 대로 모임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이 자체 평가이고 보면 그 동안 회원들의 일치된 결의가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세미나 이외에도 업계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 정기 세미나가 끝난 후 회원들이 모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지난 3월 18일 있었던 세미나 모습. 무궁화회 회원들이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



▼ 세미나를 갖기 전 회원들이 모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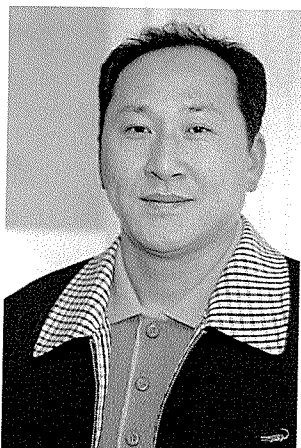


◀ 무궁화회 임원진의 모습. 회장과 총무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향후 세미나 일정 등을 토의 하고 있다.

회원 내부 결속 통해 탄탄한 기술력 다져나갈 터  
 무궁화회 모임이 진행하는 세미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회원들이 정해 놓은 규칙에 따르면 무엇보다 실용 제품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현장에서 접목이 가능하지 않은 제품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원이 대다수인 점이 우선 고려됐겠지만 기존 배합을 응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 한 번 발표된 배합에 최소 3가지 이상의 배합 응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충열회장은 “회원들이 인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인근의 한국하인즈와 경인제빵학원의 도움을



▲ 무궁화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충열 회장.

받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이 지역 제품을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회원 대부분이 열정에 가득 찬 젊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인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임으로 키워가기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다.

앞으로는 외부 모임과의 교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는 데서 이 모임이 지향하는 귀착점이 분명해 보였다. 안으로는 더욱 탄탄한 결속을 다지면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언제나 열린 시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이 모임의 총무추천제는 특이하다. 전 회원이 골고루 모임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 총무직 수행을 회원들이 단기간 순환하는 것을 통해 실제 회원들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고 있도록 하는 등 이중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성실함과 뚜렷한 직업의식으로 뭉쳐있는 이들의 행보가 비단 인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업계 전체에 신선한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 [6]